

33.

인권정보자료실
Ic1.2.32

'95 세계여성회의 관련자료 ④

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 일 시 : '94. 8. 17(수) 14:00~17:30
-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인권정보자료실
Ic1.2.32

정무장관(제2)실

'95 세계여성회의 관련자료 ④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12.15.94		

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 일 시 : '94. 8. 17(수) 14:00~17:30
-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정 무 장 관(제2)실

인사말씀

오늘 저희실에서 주최하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91년 유엔가입 이후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세계평화와 인권보장의 주체로서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여성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가입에 이어 유엔여성총회라고 할 수 있는 여성지위위원회에 금년부터 임기 4년의 위원국으로 진출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유엔차원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의결권한을 갖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열리게 될 세계여성회의와 NGO포럼을 통하여 우리의 역할은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진출과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분야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성분야는 유엔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유엔에 의하여 선포된 「세계여성의 해(1975)」와 「유엔여성10년(1976 - 1985)」은 전세계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85년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은 세계 각국의 여성정책 발전에 견인차로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와 발전속에서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여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정당에서는 전국구 의석 20%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무장관실에서는 지난 7월 국무총리지시로 「여성정책 추진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처내에 여성관련업무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여성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NGO 지도자 여러분 !

여러분들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와 함께 열리는 NGO포럼 준비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지역 NGO포럼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적 준비 모임에 참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서로 정보교환과 참여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여성회의는 '85년 나이로비 회의 이후 10년만에 대대적으로 열리는 한편 NGO포럼도 세계각국 여성들의 열망 속에 활기치게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실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하게 될 행동강령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자 관계전문가, NGO 지도자 및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대응전략을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특히 그동안의 NGO 준비활동도 알릴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세계여성회의는 참가도 중요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현황을 평가하고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심포지움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되며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8. 17

정무장관(제2) 권 영 자

프 로 그 램

- 14:00 - 14:30 등 록
- 14:30 - 14:40 개 회
 - 인사말씀 권영자 (정무제2장관)
- 14:40 - 15:10 경과보고
 - 세계여성회의 개요 및 정부간 준비활동
 - NGO 포럼 개요 및 참가요령
 - NGO 포럼 참가를 위한 여성단체 준비활동
- 15:10 - 15:40 주제발표
 - 주 제 :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의 의의와 내용
 - 발표자 : 노미혜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장)
- 15:40 - 16:00 휴 식
- 16:00 - 17:00 토 의
 - 주 제 :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
 - 사회자 : 김현자 (여성정책심의위원)
 - 토의자
 -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 박보희 (한국사회정보연구원 원장)
 - 서대원 (외무부 국제연합심의회관)
 -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17:00 - 17:30 질 의
- 17:30 폐 회

세계여성회의 개요 및 정부간 준비활동

황 인 자 (정무장관(제2)실 담당관)

1. 제4차 세계여성회의 개요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
Action fo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 기 간 : '95. 9. 4 ~ 9. 15
- 장 소 : 중국 북경 국제컨벤션센터
- 목 적
 - 1985년 이후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 이행상황 검토 평가
 - 2000년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행동강령 채택
 - 유엔 중기계획(1996 - 2001) 차원의 나이로비전략 이행 우선순위 결정
- 참석범위
 - 각국 정부 (184개 유엔 회원국등 모든 국가에 개방)
 - 유엔기구 및 정부간 기구
 - 비정부기구 (NGO)
 - 전문가 (개인·단체등)
- 주 관 : 유엔
 - 준비기구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45개 위원국, 매년 정례회의)
 - 사무국 : 유엔 사무국내 여성지위향상국 (뉴욕 유엔본부 소재)
 - 사무총장 : 거투르드 몽젤라 (탄자니아 출신)

○ 회의문서

- 행동강령 (안)
-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 이행에 관한 유엔 보고서
- 『발전과 여성의 역할』 '94 세계조사보고서
- 『세계의 여성 : 1970 ~ 1990』 최신보고서
- 세계여성회의 준비를 위한 지역회의 결과
-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편람
- 각국의 보고서

※ NGO 포럼 개요

(제4차 세계여성회의와 병행개최)

- 기 간 : '95. 8. 30 ~ 9. 8
- 장 소 : 중국 북경 근로자스포츠클럽센터
- 주 관 : NGO 포럼 기획위원회 및 촉진위원회
- 참석범위 : 관심있는 모든 남녀 개인 및 단체에 개방
- 목 적
 - 여성의 역할과 기여 평가
 - 전세계 여성의 보편적 문제와 해결방안 토의 및 각종 정보자료 교환

2. 세계여성회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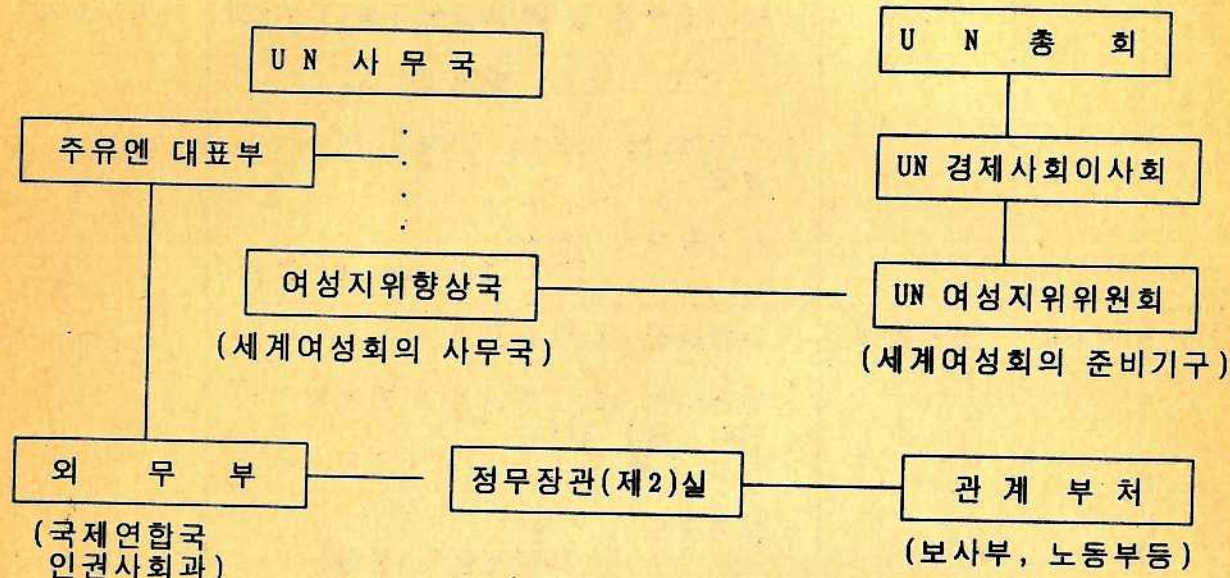
구분	연도	장 소	내 용	비 고
제1차	1975	멕시코시티	- 유엔제정 『세계여성의 해』 ('75) 기념 - 멕시코선언 및 세계행동계획(219개항) 선택 · 주제 : 평등·발전·평화 - 『유엔여성 10년』 ('76 ~ '85) 선포 유도 - 참가규모 : 2천명 (IWY Tribune 6천명)	* 정부간회의인 세계여성회의와 별도로 비정부 기구회의 개최
제2차	1980	코펜하겐	- 유엔여성 10년 중간평가 - 유엔여성 10년 후반기 사업계획 (287개항) 채택 · 소주제 추가 : 교육·고용·보건 - 참가규모 : 2천명 (NGO포럼 8천명)	
제3차	1985	나이로비	- 유엔여성 10년 사업 종합평가 -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 (372개항) 채택 - 참가규모 : 153개국 2천명 (NGO포럼 15천명)	
제4차 (예정)	1995	북 경	- 나이로비 전략 이행 평가 - 행동강령 채택 - 유엔창설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 - 참가규모 : 2 ~ 3만명 예상 (NGO 포럼, 현지인 포함)	

※ 유엔주관 세계회의 ('90년 이후)

- | | |
|--------------|------------------|
| '90 세계교육회의 | '94. 9월 국제인구개발회의 |
| '90 세계아동정상회의 | '95. 3월 사회개발정상회의 |
| '92 유엔환경개발회의 | '95. 9월 세계여성회의 |
| '93 세계인권회의 | |

3. 정부간 준비활동

* 세계여성회의 조직체계도



○ 유엔차원 (UN System)

- '90년 제45차 유엔총회에서 '95 세계여성회의 개최 승인 및 여성지위위원회를 준비기구로 지정
- '93년 2월, 거트루드 몽젤라 세계여성회의 사무총장 취임
- '93년 10월, 비엔나에서 뉴욕으로 사무국 이전
- 세계여성회의 신탁기금 설치
 - 각국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등으로부터 재정조달 목적
- 유엔환경개발회의, 세계인권회의등 유엔주관 세계회의의 여성관련사항 파악
- 세계여성회의 관련 각종 홍보활동
- 유엔기구간 세계여성회의 준비조정회의 개최 (3개월에 1회정도)
- 유엔 관련기구별 자체 준비사업 전개

○ 지역차원 (Regional Commission)

- 지역별로 세계여성회의 준비회의 개최

- 아·태지역 (ESCAP) : '94. 6월, 자카르타
(아·태지역 행동강령 채택)
- 중남미지역 (ECLAC) : '94. 9월, 아르헨티나
- 유럽지역 (ECE) : '94. 10월, 오스트리아
- 서아시아지역 (ESCWA) : '94. 11월, 요르단
- 아프리카지역 (ECA) : '94. 11월, 세네갈

○ 개최국 (중국)

- 국가차원 세계여성회의 조직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장 : 팽패운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주임
- 사무총장 : Mr. Xu Zhijian
-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 ① 조직·연락분과
 - ② 홍보분과
 - ③ NGO포럼분과
 - ④ 재정·행정분과
 - ⑤ 안전·보안분과

- 개최 주무기구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당의 군중조직단체)

- 세계여성회의 참가자를 위한 안내자료 발간 예정 ('94 하반기)

4. 우리나라의 준비활동 (정무제2장관실 주관)

- 세계여성회의 준비기구 설치
 -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위원회로 지정
 - 정무장관(제2)실을 주무기구로 지정
- 나이로비전략 이행상황 국가보고서 작성
 - '94. 5월 유엔에 제출
 - 국가보고서 및 나이로비전략을 정책자료집으로 발간 추진
- 세계여성회의 준비회의에 참석
 - 여성지위위원회 연례회의 (특히 '94년부터 위원국으로 참가)
 - 여성지위위원회 실무회의 ('94. 1월, 뉴욕)
 - ESCAP 연차총회 ('94. 4월, 뉴델리)
 - 아·태지역 여성개발 각료회의 ('94. 6월, 자카르타)
- 세계여성회의 사무총장 초청 방한 ('93. 10월)
 - 세계여성회의에 관한 강연회 개최 및 기자회견
- 정무제2장관 유엔본부 방문 ('94. 3월, 뉴욕)
 - 유엔 차원의 세계여성회의 준비활동 평가 및 공동 관심사항 의견교환
 - 유엔사무총장 면담
 - 세계여성회의 사무총장 면담
 - UNIFEM, UNICEF, UNFPA등 유엔 주요기구의 장 면담
- '95 세계여성회의 관련 자료집 발간
 - ①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실무회의 토의내용 -

- ②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제38차 회의자료 모음
- ③ 아시아·태평양 여성개발 자카르타 선언 및 행동강령

- 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 1차 : '94. 8. 17 / 2차 : 금년말 개최예정
- 세계여성회의 신탁기금에 재정적 기여 예정
 -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중
- 세계여성회의 준비사무국에 직원 파견 예정
 - 정무장관(제2)실 직원 1명을 자문관(Consultant)으로 파견
 - 자문기간 : '94. 8. 22 ~ 11. 19 (3개월)
 - 자문업무 :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 작성, 각국의 나이로비전략 이행보고서 검토 등
- 유엔주관 다른 세계회의 준비 및 후속작업에 참여
 - '92 리우 환경회의, '93 비엔나 인권회의
 - '94 국제인구개발회의, '95 사회개발정상회의

5.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 추진배경

- '91년 제35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행동강령 기본지침 마련
 -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3대 목표인 평등·발전·평화에 초점을 맞추되, 대다수 여성의 발전에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는 최소의 요인을 가려내어 진단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간결하고도 계량적으로 기술
- '93년 제37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구조(시안) 제시
 - 행동강령은 200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내용이 간결하고 (concise),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accessible) 구조가 짜여져야 함을 강조
- '94. 1월 여성지위위원회 실무회의에서 행동강령 구조 토의
 - 여성만을 별도 분리하기 보다는 남녀의 균형적 역할과 관계정립에 주안점을 두어 세계보편적인 불평등한 현상 (특히 의식과 관행)을 변화 시키기 위한 남녀의 공동협력과 화합을 강조
- '94. 3월 제38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행동강령(초안) 상정, 토의
 - 별첨 상정안과 토의결과 수정안 대비자료 참고

- ※ 별첨 : 1. 세계여성회의 준비일정 및 관련 회의일정 ('94 ~ '95)
 2. '95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

<별첨 1>

※ 세계여성회의 준비일정 및 관련 회의일정 ('94 - '95)

연 도	장 소	내 용
< 1994 >		
1. 10 ~ 1. 14	뉴 욕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실무회의 -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 토의
1. 17 ~ 2. 4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13차 회의
3. 3 ~ 3. 4	"	유엔기구간 여성분야 조정회의 세계여성회의에 관한 NGO협의회
3. 3 ~ 3. 18	"	NGO 각종회의
3. 7 ~ 3. 18	"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제38차 회의
4. 14 ~ 4. 16	스페인 톨레도	세계여성회의 유럽연합 준비회의
6. 7 ~ 6. 14	자카르타	세계여성회의 아·태지역 준비회의
8. 1 ~ 8. 6	핀란드 투르쿠	노르딕포럼
9월	서울	유네스코 성폭력 세미나
9. 5 ~ 9. 13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9. 19 ~ 9. 23	아르헨티나	중남미지역 NGO포럼
9. 26 ~ 9. 30	"	세계여성회의 중남미지역 준비회의
10. 17 ~ 10.21	비엔나	" 유럽지역 준비회의
11. 6 ~ 11.10	요르단 암만	" 서아시아지역 준비회의
11. 16 ~ 11.23	세네갈 다카	" 아프리카지역 준비회의
11. 22 ~ 11.26	산토도밍고	INSTRAW 여성·환경·보건 세미나

연 도	장 소	내 용
< 1995 >		
1. 16 ~ 2. 3	뉴 욕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14차 회의
3월	오타와	유네스코 여성과 미디어 세미나
3. 6 ~ 3. 12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3. 9 ~ 3. 10	뉴 욕	유엔기구간 여성분야 조정회의
3. 9 ~ 3. 24	"	NGO 각종회의
3. 13 ~ 3. 24	"	여성지위위원회 제39차 회의
8. 30 ~ 9. 8	북 경	NGO 포럼
9. 4 ~ 9. 15	"	제4차 세계여성회의

'95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

'94 유엔여성지위위 토의결과 수정안	'94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상정안
<p>I. 임무의 기술</p> <p>* 내용 좌등</p>	<p>I. 임무의 기술 (Statement of mission)</p> <p>* 행동강령의 임무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은 평등·발전·평화를 위하여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의 잔재를 제거하고 - 전 생애주기를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며 -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 여성을 주류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함 <p>◦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NGO와 민간부문을 주요관심분야에 있어서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을 이행하는 전략적 행동을 취할 것이 요청됨</p>

'94 유엔여성지위위 토의결과 수정안	
<p>II. 세계적 구도</p> <p>* 내용 좌동</p>	<p>II. 세계적 구도 (Global framewor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년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 채택 이래 전 세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재편과정을 겪어 왔음. ◦ 이러한 재편과정은 여성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바, 행동강령의 배경을 이룸.

'94 유엔여성지위위 토의결과 수정안	'94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상정안
<p>III. 주요 관심분야</p> <p>* 10개 주요관심분야 열거순서 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성에 대한 빈곤의 지속적 부담 가중 ② 교육·보건등에서의 불평등 ③ 여성에 대한 폭력 ④ 갈등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⑤ 경제 구조와 정책 및 생산과정에의 참여 불평등 ⑥ 의사결정 및 권력배분 과정에의 참여 불평등 ⑦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기구의 미흡 ⑧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⑨ 여성의 적극적 사회기여 촉진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활용 미흡 ⑩ 자연자원 관리 및 환경보전에 있어서 여성의 기여에 대한 인식과 지원 부족 	<p>III. 주요 관심분야 (Critical areas of concern)</p> <p>* 여성발전을 위한 주요관심 분야로 10개 분야를 제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사결정 및 권력배분 과정에의 참여 불평등 ②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기구의 미흡 ③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④ 여성에 대한 빈곤의 지속적 부담 가중 ⑤ 경제 구조와 정책 및 생산과정에의 참여 불평등 ⑥ 교육, 보건등에서의 불평등 ⑦ 여성에 대한 폭력 ⑧ 갈등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⑨ 여성의 적극적 사회기여 촉진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활용 미흡 ⑩ 자연자원 관리 및 환경보전에 있어서 여성의 기여에 대한 인식과 지원 부족

'94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토의결과 수정안	'94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상정안
<p>IV. 주요 관심분야별 전략적 목표와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목표와 조치를 좀더 명확하고 직접적이고 강한 표현으로 대체 * 각국 정부, NGO, 유엔기구등의 의견, 세계인구개발회의의 결과, 사회개발정상회의 준비과정 및 세계여성회의의 준비지역회의의 결과등을 반영하여 계속 수정 보완 <p>① 여성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관점에서 각국의 국내·국제적 경제정책 개발 - 정책과 계획의 대상목표를 빈곤여성으로 설정 - 농촌여성의 빈곤극복 지원 - 여성근로자(이주여성근로자 포함) 및 장애여성의 요구 반영 <p>② 여성의 교육 및 훈련을 보장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인을 위한 교육을 달성 - 21세기를 위해 여성을 준비시킴 - 교육을 남녀평등하게 함 	<p>IV. 주요 관심분야별 전략적 목표와 조치</p> <p>(Strategic objectives derived from the critical areas of concern and action to be taken)</p> <p>① 권력구조 및 의시결정에 여성의 참여 촉진 요인 강화</p> <p>② 여성의 인권관련 국제규범의 적용 및 시행</p> <p>③ 여성의 경제적 자립 촉진</p> <p>④ 여성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빈곤상황 극복을 저해하는 요인 제거</p> <p>⑤ 여성의 교육 및 훈련 보장</p> <p>⑥ 보건서비스에 여성의 접근 증진</p> <p>⑦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p> <p>⑧ 갈등해결에 여성참여 증진 및 국제적 갈등상황하 여성의 보호</p> <p>⑨ 정책과 계획의 수립·집행에 여성적 고려 통합위해 정보 활용</p> <p>⑩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대중매체 활용</p> <p>⑪ 남녀 공동책임 증진을 위한 조치 촉진</p>

'94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토의결과 수정안	'94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상정안
<p>③ 보건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증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인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 출산 건강과 권리 증진 - 여성건강에 관한 연구 조장 <p>④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의 근본원인 규명 - 여성 인신매매 근절 및 특정상황하 폭력대상 여성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채택 <p>⑤ 갈등해결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무장갈등 및 외국점령하 여성을 보호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과정에 좀더 많은 여성을 참여시킴 - 무장갈등 및 외국점령하 여성을 지원함 - 난민 여성에 대한 원조를 보장함 	

'94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상정안	'94 유엔여성지위위 토의결과 수정안
	<p>⑥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보 - 자원, 고용 및 적절한 근로조건, 시장, 무역에 여성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 강구 - 신속적인 근로환경 조성 <p>⑦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촉진 요인을 강화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의사결정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보장함 - 모든 직업에 있어서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참여, 기회를 제공함 -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신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강구함 - 평등한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 -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지원촉진 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함 <p>⑧ 정책과 계획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남녀평등 차원 접근을 포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과 평가에 있어서 성별구분 정보자료를 생산하고 확산함

'94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상정안	'94 유엔여성지위위 토의결과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지위 향상 관련기구를 강화 - 양성평등 분석기법 훈련 <p>⑨ 여성의 인권관련 국제규범을 적용하고 시행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약의 효력을 보장 - 국내 관행에 있어서 국제규범 적용 - 법률문제 달성 <p>⑩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재래·현대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역할을 증강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정보와 참여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보장 - 미디어에 있어서 성 고정관념 타파 <p>⑪ 남녀 공동책임 증진을 위한 조치를 촉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등의 책임분담 권장 - 남녀의 대화 개선

'94 유엔여성지위위 토의결과 수정안	'94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상정안
<p>V. 재정적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예산배정과 사업 조정을 통해 여성관련 사업 (행동강령의 주요 관심 분야사업)에 대한 재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 <p>VI. 제도적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관련 기구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및 기구간 조정협력이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여성관련 기구 - ESCAP 등 지역기구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등 	<p>V. 재정적 조치 (Financial arrangem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모든 차원에서 재정 확보가 긴급요함 <p>VI. 제도적 조치</p> <p>(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Platform for Ac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경제협력, 양성평등 관점에서 기획 및 정책수립, 관련기구간 조정협력이 제도적 조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NGO 포럼 개요 및 참가요령

정 순 영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1. 개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는 800여개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한 비정부기구(NGO)들이 자문기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5%가 비정부기구회의(CONGO)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NGO는 정부대표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각종 유엔회의에 참석한다. 이들은 표결권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압력단체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요의제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발언권을 얻어 그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정부대표들을 설득하기도 한다.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제정할 것을 유엔총회에 제안한 것도 NGO였다. 이들은 세계여성대회와 병행하는 NGO Forum을 조직하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북경에서 개최될 NGO Forum '95는 CONGO가 설립한 NGO 기획위원회(NGO Planning Committee)와 NGO 추진위원회(NGO Facilitating Committee)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 기획위원회는 Forum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자문과 정보에 바탕한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위원회가 맡고 있다.

2. NGO 포럼의 연혁

IWY Tribune(1975) - 멕시코 시티

6,000명의 여성과 약간의 남성이 참가하였으며 농촌여성에서 부터 여성우주인 훈련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걸쳐 200개의 워십이 열렸다. 동 대회는 여성발전을 향한 행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단체들을 만들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NGO Forum(1980) - 코펜하겐

8,000명의 여성과 약간의 남성이 참가하였으며 150개 이상의 워킹과 자문 회의를 열어 가사노동임금, 여성해방론, 여성학, 성착취, 기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동 대회는 국제적인 여성운동에 기여했으며 국제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공헌하였다.

Forum '85(1985) - 나이로비

15,000명이 총회에 참가하였으며, 1,400개 이상의 워킹, 전시회, 토의그룹, 영화 및 비디오상영, 시위, 바자 등이 열렸고 정부간 회의의 의제와 더불어 여성, 법과 여성발전, 동성연애권리, 난민, 가정폭력, 정책결정수준의 여성참여, 여성과 예술,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있었다. 동 대회는 여성문제에 대한 여성적인 시각과 접근방법을 위한 국제적인 강령을 제공하였다.

3. NGO 포럼 참가요령

A. 기간 : 1995년 8월 30일 - 9월 8일

B. 장소 : 중국 북경 근토자종합경기장(Beijing Sports Service Center for Workers)
동 장소는 세계여성회의가 열릴 예정인 국제회의센터(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약 2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개폐회식은 인민대회장(Great Hall of the People)에서 열린다.

C. 목적

전 세계의 여성에게 여성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

D. 참가자격 및 절차

NGO Forum은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회의인 제4차 세계여성회의와는 달리 여성문제에 관심있는 민간 여성단체나 개인 모두가 참가할 수 있으며 남성의 참가도 환영한다.

Forum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비는 개인당 \$50, 신청마감일은 1995년 4월이 될 예정이다.(신청서와 안내서는 1994년 8월경 준비된다)

* 다음의 자격을 갖춘 NGO는 제39차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및 제4차 세계 여성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할 수 있다.

-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자문기구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 지역준비회의에 참가한 단체
- 여성지위위원회의 승인받은 기타 단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995년 1월 13일까지 다음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지위위원회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여 단체의 성격과 세계여성회의와의 관련성, 여성문제해결에 대한 기여등을 검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받은 NGO의 수는 공간상의 이유로 제한된다.)

NGO Accreditation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Two UN Plaza, Room 1204
New York, NY 10017
U.S.A.

Tel: (212) 963-3140

Fax: (212) 963-3463

E. 참가인원

주최측인 NGO 기획위원회와 중국부녀연합회는 NGO Forum '95에 약 25,000-30,000명이 참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F. 시설

NGO 추진위원회는 북경 근로자종합경기장 중앙에 참가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30개의 텐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기술의 과거·미래관으로 구분될 Technology Pavilion, 각국의 문화와 여성활동을 전시하고 음악회, 토론회 등이 열릴 Pacific Pavilion, 분쟁지역의 여성문제 등이 토의되고 종교의식 등이 행하여질 Peace Tent, 정부대표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될 Our Commonground등이 세워진다.

모든 시설은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기장은 자체의 호텔과 식당을 갖추고 있다. 쇼핑과 식당지역이 마련될 것이며 탁아소, 영상실, 응급실, 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 영상기구, OHP 등도 제공될 것이다. 또한 이 경기장에는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및 체육관이 있다. 인근에는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40여개의 호텔이 있다.

G. 참가방법

워크숍, 토의그룹, 전시, 공연, 문화행사 등에 참가단체는 각 부문별로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도 있고 타 단체에 의해 조직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Forum 기간중에도 워크숍 등 활동신청을 받아 추가 되기도 한다.

Forum 기간동안 활동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위하여 장소를 예약하기 원하는 단체는 다음 주소로 문의하면 된다.

NGO Planning Committee for the
NGO Forum '95
777 UN Plaza
8th Floor
New Yor, NY 10017
USA

Tel: 212-986-0987
Fax: 212-986-0221

H. 호텔 및 관광예약

중국조직위원회 산하의 재정·행정위원회가 숙박료, 북경 시내·외의 관광코스, 쇼핑안내 등의 자세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동 안내서는 1994년 8월경 각국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다. Forum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자의 호텔예약은 주최측이 책임지지 않는다. 안내서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China NGO Forum Committee
50 Dengshikou
Beijing, China 100730

Tel: 86-1-512-7711-280
Fax: 86-1-513-6044

NGO포럼 참가를 위한 여성단체 준비활동

신 낙 균 (NGO 한국위원회 실행위원)

『제4차 UN세계여성회의』와 『민간단체 회의』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국내 여성단체들간의 이해와 연대를 강화하고 유엔 등의 외부기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NGO 한국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1993년 7월 15일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단체 실무팀』(NGO Regional Working-Group for Asia / Pacific) 주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된 『제4차 UN세계여성대회』 준비모임에 참여했던 단체 대표들이 한국여성단체들도 연대하여 준비하기로 합의하고, 그 준비를 위한 단체를 선정하였다.

1993년 7월과 8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개별단체인 성폭력상담소, 소름티미스트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 한국여성사회교육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 통일여성협의회등의 9개 단체대표들의 준비로 국내외 모든 여성단체들에게 『UN세계여성대회』 준비를 위하여 세계를 5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회의인 『마닐라 아·태지역 NGO 준비회의』에 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1993년 9월 15일

『아·태지역 NGO회의』 설명회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갖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외에 20여개 단체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아·태지역 NGO회의 참여를 위한 한국NGO 준비실무위원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김금래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이미경 공동대표),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박영혜 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신낙균 회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손봉숙 소장)을 선출하였다.

1993년 10월과 11월

『마닐라 아·태지역 NGO회의』의 주제들을 단체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준비하고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1993년 11월 16 ~ 20일

『마닐라 아·태지역 NGO회의』에 한국에서 15개 단체 33명이 참석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아·태지역 33개국에서 600명이 참여한 지역회의였다. 이 회의의 결과중 하나로 한국, 일본, 중국이 주축이 되어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Women's Forum)이 결성되었다. 한국측 연락책임자로 손봉숙 소장이 선임되었으나 후에 박영혜 회장으로 바뀌었다.

1993년 11월 30일

『아·태지역 NGO회의』 한국 참가단의 주관으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들이 한국여성단체들을 초청하여 분야별로 보고를 하고 평가와 『세계여성회의』를 위한 토론회를 하였다. 그 결과의 하나로 '95년 북경 대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한국 NGO 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실행위원을 선임할 것을 결정했다.

1994년 3월 31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개별단체로 29개 단체대표 32명이 모여 「제4차 세계여성 민간단체회의 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위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미경 대표와 여성의 전화 신혜수 부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로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회장과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의 박영혜회장, 개별 단체로 한국YWCA연합회의 김현자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신낙균회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손봉숙 소장과 종교를 대표하여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유춘자 총무등 8명을 선임하였다.

1994년 4월 11일

한국 NGO 실행위원들이 규약과 예산안을 만들고 실무를 위한 총무로 김은경을 선임했다. 본위원회는 "한국여성단체들이 세계여성대회에 관하여 신속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그 회의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준비하며, 정부와 UN에 대하여 NGO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국의 모든 여성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실행위원들은 정무제2장관을 면담하고 이 위원회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1994년 4월 28일

「제4차 세계여성회의 대한민국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장관 및 전문가 간담회의에 신낙균 실행위원이 참가하였다.

1994년 5월 ~

- NGO Forum 한국위원회 소식지 1호가 발간되어 배포되었다.
- UNDP에 총무 인건비 지원청구를 하였다
- '95년 북경에서 열리는 NGO포럼에 참가할 안내를 8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 제1차 동아시아 포럼을 준비중이다. '94년 10월 21 ~ 23일, 일본 가나카와 여성센터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한국에서 20명이 공식대표로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고 그 외에는 참관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각 단체에 신청을 받고 있다.
- 제1회 NGO Forum 한국위원회 워킹숍을 개최 준비중이다. 여성개발원의 후원으로 '94년 10월 7일, 동아시아 포럼에서 다루어질 "여성의 발전, 정치참여, 인권과 문화, 전쟁과 평화"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의 참가 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23개 단체와 개별단체 30여개로 모두 53개 단체이다. 모든 단체에게 개방되어 있으니 적극 참여 바란다.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의 의의와 내용

노 미 혜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장)

1.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의 작성 경위

여성지위위원회의 결의(37/7)에 의해 사무국의 사무총장은 정해진 구조 및 지침과 위원회의 년차 회의간 실무작업반의 회의결과에 기초에서 행동강령초안을 마련 38차회의(3.7-18, 1994)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21세기에 평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향후 일치단결하여 집중적인 조치를 취해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행동강령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동강령 초안은 위원회의 결의에서 제시한 구조를 따랐지만 실무작업반 건의에 의해 '세계적 구도(global framework)'가 제 2장으로 새로 포함되었으며 또한 제 3장 '주요관심 분야의 장'에 '대중매체의 활용미흡'과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관리에 있어서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지원결여' 두부분이 포함되었다.

38차 회의에 제출된 초안은 실무작업반의 검토결과, 작업반회의중 각국 정부의 검토의견, UN체계내 기구들의 기여, 1987년 이래 위원회에 제출된 주요주제에 관한 세미나 및 워크샵의 결과, 발전에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1994년 세계조사, 그리고 나이로비 미래전략이행의 제2차 검토 및 평가를 기초로 해서 제 1장 '임무의 기술' 부터 제 3장 '주요관심분야'가 서술적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행동강령초안에서 4장의 전략목표와 조치는 향후 위원회가 38차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초로서, 사무국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침으로 준비되어 내용을 보완할 계획으로 마련되었다. 제 5장과 제 6장인 재정적인 조치와 제도적인 조치도 1995년 중 상세히 보완하는 계획으로 일반적인 접근방법만을 기술하고 있다.

38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행동강령초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먼저 '주요관심분야'의 순서를 바꾸고, '전략적 목표와 조치'의 순서와 내용도 이에 따라 일관성있게 기술하며 주요관심분야의 기술방식은 문제의 심각성과 실증적인 근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고안된 지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제 4장 '전략적 목표와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한 언어로 표현되도록 하고 조치의 기술방식은 주위를 환기시킬만하면서 간결한 양식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행동강령은 UN합의가 모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토록 하였다.

내용의 수정에 있어서는, 제 3장 '주요관심분야'의 서론에 주요관심분야들이 상호 의존적임을 기술하고,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의 이행과 관심분야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주요관심분야에서 제시된 순서가 여성의 관심사를 반영할 것이고 우선순위에서는 모든 관심분야가 동일함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 4장의 '전략적 목표와 조치'의 서론에도 상기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4장의 서론에 이어서 행동계획을 주도하고 유지해 온 여성운동의 역할에 대한 찬사를 추가하며, 여성시각에 기초한 계획, 조치의 다양한 방법, 체계적인 평가와 모니터를 위한 양적 및 질적지표의 사용등 전반적인 요소를 서론에 포함하고, 또한 핵심적인 수행자가 여성임을 강조하며 남성역할의 중요성 또한 적절히 강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지위위원회 39차 회의에 제출될 행동강령(안)은 정부, 정부간기구, UN체계내기구, 비정부기구들의 제안, 그리고 38차 회의중 토의된 상세한 제안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별회의의 결과, 「인구개발회의」 및 「사회개발정당회의」의 내용이 참고되고, 향후 전문가회의, 기술회의 및 실무작업반 회의의 토의내용을 수렴, 수정정보완토록 하였다.

2. 행동강령(안)의 목표와 배경

여성지위위원회가 행동강령초안 작성시 사무국에 주문한 바와 같이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여성이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주요관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조치를 작성한 것이다.

제 1장의 임무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동강령의 목표는,

- 경제 및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가속화시키고,
- 생애주기를 통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며,
-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해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든 분야에 여성을 통합하는데 있다.

이 목표를 위해 국제사회, 정부, 비정부기구 및 사적부문은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요관심분야에 관한 전략적 조치를 취할것을 요청하고 있다.

1985년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 채택이래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재구성과정의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재구성과정은 여성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행동강령(안)은 제 2장 세계적인 구도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세계적인 여건의 변화를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 정치관계의 변화는 세계적인 전쟁갈등의 위협을 축소시켰으나 민족주의의 부활과 인종분규로 인해 많은 지역이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민주화를 향한 진행은 보편적인 인권보장과 함께 가고 있다. 세계인권대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의 불가양, 불가결, 불가분한 것임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국가, 지역, 국제수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의미하며 또한 성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가 국제사회에서 우선목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위해 수행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침체는 국가간 경제관계의 재구성을 초래하였다. 세계시장경제의 의존도와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정보, 보건 및 관련 서비스부문 등 신기술 관련분야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고용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세계의 거의 모든지역에서 여성이 새로운 산업부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복지서비스부문의 규모감소와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투자감소로 절대 및 상대적 빈곤비율이 증가했고 취업을 위한 남녀의 광범위한 이주현상이 수반되고 있다.

천연자원고갈의 가속화와 기타 환경문제는 발전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세계적인 합의가 모아지게 하였다. 「UN환경 및 발전회의」는 여성이 자연자원, 특히 농촌지역의 자원보호와 관리의 주요한 수행자임을 밝히고 있다.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곧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노년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인간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는 것처럼 남녀의 관계도 변화되고 있다. 남녀의 성취와 참여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차이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역할의 결과임이 인정되고 있다. 생산 및 재생산의 역할사이의 남녀노동분업은 이제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 조치는 여성에게 초점을 두기 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남녀간 동반자관계의 진전을 강조하는 성역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성문제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들 사이 및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차이들이 본질적인 차이이기 보다는 정도의 차이로서 문제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차이이거나 수용능력의 차이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청소년, 노인여성, 장애여성, 이주여성, 난민여성, 강제퇴거여성 등 경험이 다양하고 또한 각기 특수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부문이 성에 기초해서 초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공통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여성의 경험, 지식, 시각 및 희망 사항등의 다양성과 공통성의 양면이 여성의 힘의 근원이 되고 행동강령의 과업이 성취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3. 행동강령(안)의 내용

행동강령(안)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임무"를 기술하고 있고(statement of mission), 제 2장은 세계적 구도(global framework)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 3장에서는 주요관심분야(critical areas of concern), 그리고 4장은 전략적 목표와 조치(strategic objectives derived from the critical areas of concern and actions to be taken). 제 5장은 재정적조치(financial arrangements)를 그리고 제 6장은 행동계획의 이행과 모니터를 위한 제도적 조치(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plan of action)를 기술하고 있다.

행동강령(안)의 제 3장 주요관심분야와 제 4장 전략적 목표와 조치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서는 38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초안에서 주요관심분야에서는 다루지 않고 전략적목표와 조치에서만 다루었던 '정보의 활용부문'은 여성관련기구의 미흡에 대한 조치부문에 포함되어 소주제로 다루어졌다. 또한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 3장과 제 4장의 서론이 추가되었다. 제 4장에서 주요관심분야별 목표의 기술방식을 변경하였고 목표를 설명하거나 구체적 목표량을 제시하는 문단을 추가하였으며, 관련조치를 소제목으로 하여 구체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제 5장의 재정적 조치부문과 제 6장의 제도적 조치부문을 국가, 지역 및 국제차원에서 효율성제고를 위해 현재도의 개선, 강화방안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등 행동강령초안을 보완하였다.

제 3장 및 제 4장 주요관심분야 및 이에 따른 전략적 목표와 조치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주요관심분야 및 이에 따른 전략적 목표와 조치

주요관심분야	전략적 목표와 조치
1. 여성의 지속적인 빈곤부담 가중	1. 여성의 빈곤극복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을 고려한 국가 및 국제경제 정책의 개발 -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농촌여성의 빈곤극복 지원 - 이주자, 이주여성근로자 및 강제퇴거여성 지원조치
2. 교육·보건등에서의 불평등	2. 모든 수준, 분야, 부문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훈련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에 대한 교육의 성취 - 21세기에 대비한 여성의 준비 - 성평등에 기초한 교육 3. 여성의 생애주기 단계별 질적 보건서비스 접근기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국민에 대한 보건서비스 제공 - 재생산 건강 증진 및 권리 제고 - 여성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의 지원
3. 여성에 대한 폭력	4.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원을 밝힘 -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통합적 조치의 마련 - 성의 매매행위를 근절하고 특수상황하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는 여성지원을 위한 특별조치의 채택

4. 무력충돌 및 갈등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5. 갈등해결에의 여성참여 확대 및 무력충돌, 기타 갈등 및 점령하의 여성보호
-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 무력충돌 및 점령하의 여성지원
 - 난민 및 강제퇴거여성에 대한 지원보장

5. 경제구조, 정책 및 생산 과정에 여성참여와 접근 기회의 불평등

6. 고용, 적정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자원 통제의 접근기회 제공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촉진
- 여성의 경제권 보장
 - 경제적자원, 고용, 적절한근로조건, 노동시장 및 무역에의 접근기회에 대한 적극적조치 마련
 - 탄력적인 근로환경 조성

6. 모든수준의 권력 및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불평등

7.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과정의 모든수준 및 분야에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촉진 요인의 강화
- 교육, 훈련에서의 여성참여 보장
 - 모든부문의 직업에 평등한 접근, 참여, 기회의 제공
 -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참여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
 - 평등한 참여를 가능케하는 여건의 조성
 -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의 활용

7. 여성지위향상을 위한관련 기구의 미흡

8. 모든수준 및 분야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성평등차원의 통합
-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성별분리통계 및 정보의 생산, 보급
 - 행동강령이행을 위한 여성지위향상 국가기구의 강화
 - 성별분석 도구의 개발, 훈련, 적용

8.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 및 업무의 결여

9. 모든 인권의 평등한 향유보장을 위한 국제규범과 기준의 적용.시행
- 국제기구의 효율화
 - 국제규범의 국내이행
 - 법률문제 달성

9. 여성의 적극적 사회기여 촉진을 위한 대중매체 활용미흡

10. 남녀평등의식의 촉진을 위해 전통적/근대적 전달 매체의 역할제고
- 여성의 매체참여와 정보접근 기회의 보장
 - 매체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의 철폐

10. 여성의 환경보존 및 자연자원관리 기여에 대한 인식과 지원 부족

11. 평등달성을 위한 남녀의 공동책임 권장조치의 촉진
- 가족책임과 기타책임의 공유권장
 - 남녀간의 의사소통 개선

38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주요관심분야중 빈곤부문의 본문에 구조조정정책과 프로그램 및 농촌여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반영할것을 제안하였고, 또한 폭력부문의 본문에 38차회의에 제출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조치에 관한 전문가회의'결과를 반영하고, 테러행위와 극단적인 종교적관점에서 초래된 폭력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전략적 목표 중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규범 및 기준의 적용', '평등의식촉진을 위한 매체의 역할 제고', 그리고 '평등달성을 위한 남녀의 공동책임 증진'은 본질적이기 보다는 도구적임이 지적되었고, '평등달성을 위한 남녀의 공동책임증진'은 기타 다른 모든 목표에 통합되어야 하며 별개의 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되었다.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안)을 아태지역 행동계획과 비교해 보면, 행동강령(안)은 세계각국의 행동계획의 기초가 되는 강령으로서 제 4장으로 전략적목표와 조치가(향후 보완되겠지만)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아태지역 행동계획은 주요관심분야 별로 문제해결을 위한 광의의 목적을 기술하고 대상, 분야 및 과제별로 전략적 목표와 이에 따른 조치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태지역 행동계획은 제 1장 임무의 기술에서 행동강령(안)의 세가지 목표에 더하여 '가족, 지역사회, 국가, 지역 및 국제수준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의 마련'을 제안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평등한 참여를 한번 더 강조하고 있다.

행동강령(안)에서는 '인권', '폭력' 및 '무력충돌'을 각기 다른 주요관심분야로 다루어 여성의 보편적인 인권의 향유로서 모든 수준 및 분야의 평등한 참여와 성에 기초한 차별철폐를 강조하고 있으며 폭력부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원을 밝히고, 폭력 및 성의 매매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조치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력충돌 및 기타 갈등상황 및 점령하의 여성부문에서는 갈등상황하의 여성보호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태지역 행동계획에서는 '여성인권'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와 '무력충돌 및 갈등상황하의 여성보호'로서 행동강령(안)에 비해 축소해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평화구축' 부문에서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다루고 있다.

다른한편 아태지역 행동계획에서는 빈곤, 고용, 교육 및 보건부문에서 대상, 분야 및 과제별로 전략적 목표와 조치가 세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 토 의 >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

김 정 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1. 세계행동강령의 의의

UN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한 후 개최된 멕시코, 코펜하겐, 나이로비의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은 그동안 전세계 여성의 실질적 지위에 기여해 왔다. 전세계의 정부, 비정부대표들이 모여 도출해 낸 합의로서의 행동강령은 국제적 보편규범으로서 지구촌이 지향하는 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전세계에 200여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그 문화전통, 이데올로기 및 세계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엔을 통해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다양한 시각을 통합하는 노력이 있어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각 국가의 정부대표 및 비정부기구대표는 자신들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세계회의에서 다양한 시각의 공통분모로서 행동강령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이 채택된 후에는 이의 효과적이고 실질적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입장

과거 세계여성회의에서 여러참가국 대표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간혹 자기 정부의 업적을 선전하거나 다른나라 대표들도 놀상 되풀이하는 상투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호응을 얻는 나라 대표들의 발언을 보면 상당한 전문성과 연구에 입각해 있다.

이제는 우리의 여성국제협력도 전문화될 필요가 있으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참신성과 전문성을 지향하기 위해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 처럼 비정부기구의 전문성 있는 대표들이 정부대표단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회의에서의 우리대표의 발언내용이 세계여성문제에 대한 참신한 시각과 철학을 제시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할때 우리나라의 위상도 크게 제고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탈관료적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행동강령에 반영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전통적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야 남녀평등 규범을 헌법에 도입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국가로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전통적 문화의 장애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전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높은 여성교육수준을 자랑해온 나라로서, 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셋째,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서, 자유와 인권, 복지가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넷째, 분단과 핵확산의 위협에 당면한 나라로서, 통일, 반핵, 평화, 인간의 존엄성 등이 여성의 지위에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의 건실한 가족제도 및 미풍양속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여성의 성적 상품화, 음란퇴폐문화, 음란비디오 등에 대해 세계행동강령은 왜 침묵하는가? 여성의 가정내에서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의 장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

3.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여성의 참여촉진요인 강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이사장으로서 본인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행동강령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동강령에서 논해지고 있는 많은 전략들이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없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거나 그 이행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태평양 여성개발 행동강령이 여성정치참여에 대해 제시하는 조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 시민, 정당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 여성의 비율을 입법조치나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적 장애의 제거를 위한 쿼타제의 도입, 훈련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2000년까지 20%까지 증가시키도록 고무된다.

여기서 '고무된다'(are encouraged to)라는 약한 표현을, '촉구된다'(are urged to)와 같은 강한 표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쿼타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홍보하고 여성계는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이 20% 쿼타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는데 행동강령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정책결정에서의 권력분산이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인정해야 한다.

행동강령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회피하고 '권력분산'과 같은 개념을 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과 여성의 권리와 연관성을 강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에의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여성이 정부, 노동조합, 기업과 지역단체 등에 평등하게 대표 되도록 하기 위해 능력있는 여성후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합심하여 여성인명록을 작성할 수 있다면 여성정치참여는 훨씬 용이하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행동강령의 이러한 조항들이 널리 검토되고 홍보되어야 한다.

-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부, 행정부, 법, 노동조합, 고용자단체 및 지역단체에의 평등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무하기 위해 특히 비정부기구의 여성사회교육의 기능이 중요함을 역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 편견의 극복을 위한 언론의 활용, 단체활동, 교육 및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해 훈련 등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 육성, 훈련하고 리더십을 개발해야 할 중요성 및 이에 있어서 정부, 정당,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부각되어야 한다.

4. 맺는말

우리나라 여성은 훌륭한 가능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아직도 남존여비문화의 잔존 속에 많은 억압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다.

세계회의의 행동강령에 우리민족의 독특한 경험에 입각하여 많은 창조적인 공헌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세계회의에 나아가 그럴듯한 발언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여성문제가 국제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는다. 무엇보다도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에 각 정당이 20% 쿼타제를 실시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도움으로써, 시민의 반인 여성의 정치적 소외를 종식시키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야 말로 현단계 여성 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 정부대표의 발언이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행동강령에서 이 문제가 보다 강력한 구속성을 가지고 제기될 수 있도록 여성계는 단합하여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토 의>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

박 보 회 (한국사회정보연구원 원장)

여성20년대의 성과

1975년의 멕시코 세계여성회의는 인류의 제2의 성, 즉 우리들이 더 이상 제2의 성이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위치를 찾고,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우리 공동체와 세계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고 공식 선포한 자리였다.

그 후 만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들은 코펜하겐과 나이로비에서 세계 여성대회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행동계획을 만들고 그 이행을 위해 우리 개개인과 우리의 모임체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방대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여성20년대 행동계획의 한결같은 목표는 평등, 발전, 평화였으며 이들 목표 달성의 기간 전략은 보건, 교육 그리고 고용 부문에서의 균등참여였다. 정치, 문화 부문에서의 균등참여도 첫 여성십년대 후반쯤 부터 우선목표로 부각되었고 그 실현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다.

그러면 여성20년대는 우리 한국여성을 포함하여 세계여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나이로비 여성발전 행동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연합 사무국의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 제출될 행동강령(안)은 다음을 주 성과로 시사하고 있다.

- 성 평등 의식의 확산.
- 성 평등 인식에 바탕한 법 제정.
- 여성의 발전과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적, 행정적 제도/장치의 설정.
- 여성고용인구를 포함하는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양적 팽창.
- 문맹율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지수로 본 여성교육수준의 현저한 향상.
- 모성 사망율, 여성 빈혈, 모자보건, 출산 보조 서비스 등으로 본 여성의 건강 수준의 향상.

즉 여성20년대는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몇몇 선행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성20년대는 성 평등 자체를 만족스럽게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으나 가장 단적으로는 여성 정치참여의 어려움, 성 평등 관련 법령 이행의 부진, 여성 경제참여의 주변성과 이에 따른 빈곤의 결진적 여성화, 이들 모두가 말해 주는 여성 국정참여의 부재 내지 미미함 등에서 볼 수 있다. 나라에 따라 얼마간

의 차이는 있으며 간혹 예외도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이러하다는 것이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제출될 행동강령(안)에 반영된 국제연합의 시각이기도 하다.

여성발전의 새 방향 : Empowerment

동 행동강령(안)은 성 평등을 위시한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의 보다 충분하고 보다 효과적인 추구를 위한 많은 방안을 담고 있는 바 주제발표에서 언급될 대로이다. 이에 더하여 이달 22일부터 뉴욕에서 열릴 사회개발정상회의 (19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예정)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검토할 정상선언(안) 및 행동프로그램(안) 내용 가운데서 여성 issue와도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성 평등은 정책의 목표일 뿐 아니라 그 기초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남녀간 권력관계(relationships of power)의 변화를 촉구하는 정치적 [과제]이다. . . . 못 제도화, 정책과 그 시행을 성 평등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 정책과 사업이 재조준되어야 하며, 남녀간에 예측적, 편차적 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p. 26 para 26)
- 여성의 빈곤 삭감을 위해서는 성 평등을 이룩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경제 개발과업에 충분히 참여토록 함이 우선과제이다. (p. 30 para 33)
- 여성의 토지 소유권과 상속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토지개혁의 경우 포함). (p. 32 para 38)
- 여성의 생산자원 활용을 용이케 하고 전통적 여성노동의 이중부담을 덜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 하다. (p. 35 para 46)
- [여성의 가사노동, 자영활동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한 현금, 현물 생산활동을 포섭 할 수 있도록] "고용"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 (p. 50 para 84, p. 61 para 112)
- 과학·공학적 지식과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람 위주로 활용하되 여성의 단순노동을 덜고 그들의 경제력을 강화 할 방안 (소득증대사업 포함)이 권장 되어야 한다. (p. 54 para 95)
- 정책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각계 관련자들은 여성의 다중역할과 이것이 그들의 고용에 영향을 주고 고용으로 말미암아 크게 영향받는 사실에 관심 두어야 하며 성에 바탕한 노동분담과 제도적 지원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p. 65 para 118)

인간복리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부문간 벽을 넘어서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위해 통합적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는 포럼을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 할 필요가 있다. UN총회의 현안들도 이 취지에 따라 구성되고 우선순위도 설정되어야 한다. (p. 19 para 9)

이상 국제연합이 내년에 예정하는 2대 국제회의에서 그 회원국들로 하여금 채택토록 하고자 준비중인 행동방안들은 새로운 것들은 아니다. 다만 강조점이 달라졌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여성발전 행동계획이 여성의 경제참여와 보건, 교육 등 기본 서비스의 양적 질적 증진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면 방금 살핀 방안들은 성간 힘의 균형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 "Empowerment"가 여성관련 국제회의의 catch word가 된 것도 이 때문이겠다. 성 차별 폐지를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움직임; 여성의 보다 직접적인 정치참여 방안의 모색; 광역 경제정책 방향설정은 물론, 환경관리, 과학/기공학 활용, 국제분쟁 내지 갈등 해소, 나아가서 평화정착 노력에의 직접참여 요구 등이 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출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힘있게 되기 위한 제언

경제참여위주 전략이 여성의 실질적 지위향상에 미친 공헌이 기대에 크게 뒤진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정치, 기타 영역에서 보다 직접적인 국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코자 하는 전략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전략은 어디까지나 전략이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여러가지 수반조건이 충족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면 충족 되어야 할 조건이란 어떤 것 들인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다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결의 (Commitment)

여성 개개인, 여성단체, 유관단체, 사회 지도층, 각국 정부, 국제기구를 막론하는 의지의 집결이 필요로 된다. 이 의지가 국제적으로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계영역간, 부문간 협동과 조정을 통해서 지식과 자원을 창출·동원하고 행동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제도·장치를 만들고 . . . 필요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광의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로 대표된다. 이러한 의지의 결핍이 지난 20년간의 여성발전 행동계획 이행의 가장 큰 걸림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강력한 동기

여성은 전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그들이 힘을 합친다면 성 평등 실현을 비롯한 여성20년대 목표를 가까운 장래에 달성하지 못할 리 없다. 지난 수십년간의 여성 지위 향상 노력은 소수 지도층 여성들이 중심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여성20년대의 지금까지의 성과는 대다수 여성들이 전력을 다하여 동참해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보다 충분한 성과를 바란다면 여성들의 보다 광범하고 투철한 자체동원은 필수조건 의 하나이다.

행동을 위한 결의는 동기의 강약과 직결된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이 여성들 자신과 그들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행동 동기를 부여하며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 평등의 실현 그 자체가 여러 차원에서 더 할 나위없이 소중한 가치이며 절대 다수 여성이 오래오래 갈급해 온 소원이니 만큼 이 소원달성이 그들의 집결된 자체동원의 동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 경제·사회참여를 통해 스스로 지닌 잠재능력을 보다 넓고 깊게 발휘해 보고자 하는 자기발전 욕구도 중요한 행동동기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년간의 여성발전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대한 만큼 큰 작용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가장 가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것은 그들 자신과 그들 가족의 물질생활을 향상시키고 가정박 활동을 통해 또하나의, 보다 포괄적인 자체감을 형성하려는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복합동기가 아니었나 한다. 그러나 이 동기도 대부분 여성으로 하여금 불평등한 고용조건을 무한정 받아드리고 은퇴까지 코스란이 직장생활을 계속하게 하지는 못 하였다. 여성근로자들의 평균고용 년수는 10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편 그들이 점차 대기업에서 밀려나 중소 내지 영세기업에서 일하게 되는 경향이 현저해졌다. 자영업 여성의 비율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 경제참여의 주변화를 말해 줄 지언정, 그들이 경제분야, 나아가서는 다른 사회분야에서 의사결정의 본격적인 동반자가 된다는 것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추세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즉 경제적 동기도 현 국내·외 여건 하에서는 여성동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지는 못함이 분명한 것이다.

3. 생존욕구와 또하나의 행동무대

그렇다면 다른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는가? 생존욕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물리치고 그 발전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를 생각하게 된다. 환경 및 소비자보호영역에서 이미 발토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그러할 수 있는 이들 욕구를 생각한다. 즉 여성들은 코펜하겐/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을 계속 추구함에 있어 경제참여에 추가하여 또하나의 전선을 환경보전과 소비경제 영역에서 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한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두 영역은 서로 밀접하며 국내·외적으로 21세기의 주요 발전 현안이자 그 전략의 중심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대부분 나라에서 여성들은 이미 이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들이 이 영역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집결된 노력을 펼쳐 환경과 생산경제 사이에, 그리고 환경과 과학/기공학 사이에 다리를 놓고, 생산경제와 소비경제 사이 그리고 소비경제와 환경 사이에도 필요한 연관을 짓는다면 그들은 21세기 경제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환경의 파괴를 막아 자신들과 후손의 생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그들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실질적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원치 않아도 다가오는 세기의 주역이 될 것이다.

4.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전환

지금 우리 여성들은 경제, 사회, 정치 등 영역에서 힘을 나누어 달라고 하고 있다. 수천, 수만년을 두고 힘을 박탈 당했던 우리들로서 이 입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힘은 그 본

질이 그러해서 스스로 힘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힘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여받은 힘은 그 행사에 있어서 의타성을 벗어나기 힘들고 그러한 힘의 행사는 계속적인 종속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들은 결국 스스로 힘 있게 될 길을 찾아 가야 하는 데 환경, 소비경제, 과학·기공학 영역에서 인류의 생존과 그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제2의 전선을 열고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 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 위한 첩경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UN이 제시한 행동강령(안)은 가지 가지 좋은 방안들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나열적이라 하겠고, 현시점에서 요청되고 있는 전략적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며, 그 핵심에 바탕한 통합성에 있어 미비한 듯 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가 소비경제 영역의 소요 사항들(requisites)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더 좌우될 가능성에 비추어 이미 여성들이 상당한 발판을 가지고 있는 이 부문에서의 여성참여의 의의를 아직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 가 한다.

같은 시각에서 한 두가지 더 바람직 한 것들이 있다. 그 하나는 강령의 문맥과 message들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능동적 mode로 제시됨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피해자 syndrome에 사로잡힌 채 남성들로 말미암아 자행되는 [이 불평등, 이 박해를 거두어 달라]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물리치겠다 하는 것이 주 맥락이 되는 강령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5. 행동방안의 체계화

다른 하나는 여성들을 힘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과제, 과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된 그리고 통합적 접근안이 포함될 법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안은 밀도 높은 지식과 정보의 창출에서 부터 선택된 전략부문에서의 집중적 인력훈련, 배치 그리고 활용, 공·사 영역간의 유기적 협동체계 조성, 다국적 혹은 국제적 협력활동에 대한 구체적 구상, 대중매체의 체계적 활용, 사업자금의 구체적 조성방안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

이 연 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975년 멕시코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여성의 해」 기념 세계여성대회는 6개장 219조항의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국내, 지역, 국제 수준의 추진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개발원이 탄생하고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됐으며 많은 법이 바뀌고 여러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여성대회는 이제부터의 세상만들기를 위한 청사진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의 경위를 보면 21세기에 평등현실화를 위한 집중 조치로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대체로 여성지위 위원회가 토의결과 제시한 수정안은 포괄적으로 여성의 공통적인 성취목표와 전략을 담고 특히 미흡한 점을 잘 기술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의 이해를 근거로 몇가지 생각을 제의 하겠습니다.

1. 대중매체 활용이 미흡했던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응책에서 정보매체에 대한 전달매체 역할제고, 정보접근 기회보장과 성역할 고정관념철폐 뿐 아니라 매체의 수용자가 전적으로 여성이란 점을 부각시키고 수용자운동을 펴서 적극적으로 매체내용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조정기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2. 5장의 재정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비율로 표시해서 시행목표를 가시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3. 6장의 제도적 조치에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여성관련 기구의 기능과 역할강화 및 기구간 조정협력에 있어서 여성관련 기구 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관련 기구와 회의에 일정비율의 여성대표 참여를 표시하여 여성끼리의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기구와 행사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 지난해 세계인권회의에서 확인한 여성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기본축으로 하여 성차별 철폐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기본인권 향유에 미흡한 점을 점검 수치화하여 목표달성에 접근해야 합니다.

5. 생애주기에 대한 연령별 정책과 계획수립에 부가해서 수명연장에 따르는 노년층의 부양과 노인환자 간호문제가 여성의 사회참여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부각시켜 노년층 복지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6. 사회변화와 경제구조 변화로 말미암아 기업, 국가, 지역간의 상호의존도가 증가하고 다국적기업이 활성화하는 현실, 그리고 정보와 서비스분야의 발전등이 다소 여성에 유리해지는 흐름을 포착해서 여성에게 신기술 훈련의 기회를 집중시키고 급격한 사회변화의 충격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여 남녀의 새로운 역할과 변화에 대한 적용문제를 구조적인 변화의 과제로 채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제1회 여성대회 이후 20년의 시간이 가져다준 사회변화에 주목하고 환경 파괴와 발전위주의 경쟁을 지양하며, 자연자원 관리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병행하는 남성참여와 조화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8. 인류사회는 정보화시대에서 공동체, 자율화시대를 향하면서 창의적인 새로운 질서와 가치추구를 선택하게 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합한 기술원리와 인간의 완전한 조화를 기대하는 시점에 다달았습니다.

물질만능시대를 벗어나면서 인간중심의 경쟁과 자기보전, 소비강화등의 체계에서 그 후유증인 오염, 범죄, 폭력, 불평등, 파괴등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 균형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환경보존, 삶의 중요성과 협력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이 인간개체의 문제 뿐 아니라 전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공동체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사람과 생물, 무생물의 상호작용을 인정하며 모두의 협력을 중심과제로 다루는 차원에 이르렀습니다.

남성대 여성의 시각에서 벗어나 전인류의 균형잡힌 공동체문화 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구조의 기반으로 필수적인 남녀의 협력차원에서 21세기의 평등 실현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몇년 사이에 활발하게 확산되는 "남성학"의 내용도 남성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틀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자유로움을 찾고 여성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떨어진 여성을 끌어 올린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성차별문제를 미래를 위해서 남·녀가 아닌 인간의 문제로 다루는 철학적 바탕을 강조해야 합니다.

<결 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물리적 여건에서 남성과 여성이 특별히 구별해서 할 일 보다는 적절한 재능을 적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도 함께 휴식도 함께 인간으로서 균형잡힌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현재의 성차별이 여성과 남성의 균형을 깨뜨려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보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21세기의 평등사회는 우리모두의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남, 여성관을 바꾸고 사회변화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베이징 여성대회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사회상과 미래사회에 걸 맞는 참신한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동강령의 시행촉구에 있어서 불이행에 따르는 불이익이 명시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사회참여 기회박탈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는지 계량적인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메 모

